



VALUE INVEST KOREA

2017년 06월 넷째주



빅팟게임즈



신라젠



엠티아이지



와이랩



헤드플레이



VENTURE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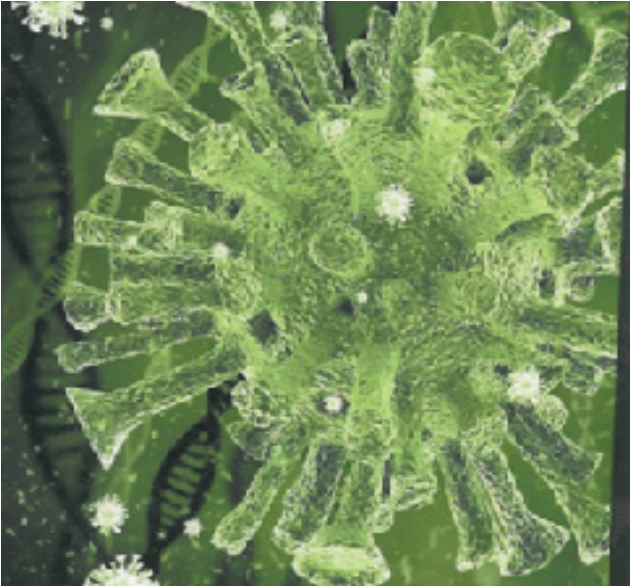
팡스카이, 카지노 사업 진출 / 골드퍼시픽 팡스카이 지분 취득

■ 팡스카이, 글로벌 카지노 플랫폼 기업 캐츠인터내셔널 인수

- 카지노 슬롯머신 및 플랫폼 전문개발사인 캐츠인터내셔널(대표 최종학) 흡수 합병 발표
- 캐츠인터내셔널 : 제주 신화월드공원 카지노에 제품을 납품 중인 카지노 게임 전문 플랫폼 기업
- 캐츠는 최근 제주도에 위치한 테마파크인 신화월드공원과 카지노 납품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일본의 파친코 전문회사인 산요의 개발사 제이티(JT)와 카지노 관련 플랫폼을 공동 개발 중
- 산요는 일본 파친코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기업으로 2018년 카지노 시장이 정식으로 열림에 따라 한국 게임사인 캐츠와 손잡고 카지노 시장 진입을 준비 중
-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전문서비스 업체인 팡스카이는 캐츠의 흡수합병으로 카지노 관련 노하우와 해외 인프라를 통해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카지노 전문회사로 발돋움할 전망

■ 골드퍼시픽, 팡스카이 지분 11.3% 취득

- 골드퍼시픽은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팡스카이 주식 20만주를 취득했다고 22일 공시
→ 취득 금액은 30억원이고 취득 후 지분율은 11.3%
- 이번 유증참여를 통해 온라인 게임 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다각화 및 매출, 영업이익 신장을 기대



Targeting
Attacking
Eradicating Cancer

다국적 면역항암제와 협력, 경쟁

■ 다국적 면역항암제, 신라젠과 협력 및 경쟁

- 항암제를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신라젠에 미팅 신청
- 문 대표는 올해 행사에서 20여 개 다국적 제약사들과 미팅이 예정
 - 매출액 기준 글로벌 상위 10위 이내 제약사는 전부, 20위권 제약사들이 미팅 대상
- 리제네론과 신장암 치료제 개발을 위한 병용투여 협약을 시작으로 다국적 제약사와 접촉
 - 신라젠을 상대로 한 협약 경쟁에서 밀리면 그만큼 항암제 포트폴리오가 약화되기 때문
- 문 대표는 “지금까지 상품화된 바이러스 항암제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활용한 암젠의 티벡(상품명 임리직)뿐인데 티벡은 피부암 치료용으로만 쓰인다”며 “펙사벡은 모든 고형암 치료제로 상품 잠재력이 커 다국적사들로서는 펙사벡을 놓쳐서는 안되는 구조”라고 설명
- 일부 다국적사들이 바이러스 항암제 개발에 나섰지만 이제 막 임상 1상에 들어가 펙사벡과는 10년 이상 격차-문 대표는 병용투여 협약을 맺기는 하지만 임상 전권과 판권을 넘기는 식의 기술수출은 하지 않겠다고 설명
- 문 대표는 “신라젠이 단독으로 주도하거나 리제네론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항암제는 간암, 신장암 치료제 정도여서 다양한 암종, 임상 지역을 놓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매우 폭넓다”고 강조



신기술 인증마크(NET마크) 획득

■ 기술표준원. 신기술 인증마크(NET마크) 부여

- ‘티타늄소소화물(TiHx)분말을 이용한 분말사출성형 휴대전화용 부품 제조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
- 기존 기술대비 50%의 원가절감 / 티타늄 휴대폰 케이스 및 기패드 등 각종부품의 100% 수입대체 실현 가능
- 적용분야 :의료, 전자, 선박, 기계부품, 무독성 유아용품, 건설자재 등

※ NET(신기술인증)

- 인증기술의 표시는 'New Excellent Technology'를 형상화한 신기술인증표시(NET마크) 사용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
-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
-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



와이랩, ‘코미코 글로벌 사업 전략 설명회’ 참석

NHN코미코는 한국 웹툰의 콘텐츠 파워와 일본 코미코의 플랫폼 파워의 시너지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와이랩은 글로벌 진출 서비스 성과 및 성공요인, 콘텐츠 전략 및 로컬라이징 사례 공유, 일본 시장 진출 상담이 진행된 ‘코미코 글로벌 사업전략 설명회’에 참가하였다.

■ 코미코의 글로벌 사업 지원

-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최적화된 연재 서비스 지원
- 일본 최고수준의 로컬라이징 내부 전담팀의 해당 문화에 맞는 번역 및 현지화 작업 담당
- 세로스크롤과 전면 컬러의 웹툰 제작 툴 지원
- 독자 타겟 마케팅 지원
- 유료 콘텐츠를 통한 수익 배분
- 글로벌 IP 집중관리
 - 출판물과 애니메이션 제작, 영상화와 무대화 등 웹툰 2차 사업화 지원
- 작품기획을 위한 프로젝트 단위의 협업 및 재무적 투자 고려

※ 일본 코미코

- 서비스 4년차
- 누적 투고 작품 : 1만 6000여 점
- 독자 코멘트수 : 1800aks 건
- 일본이외 한국 대만 태국 등 아시아 4개국 2500만 다운로드 기록
- 현지 오리지널 작품 380여개 보유



편치라인, 스타작가 이지환 작가 작품 독점 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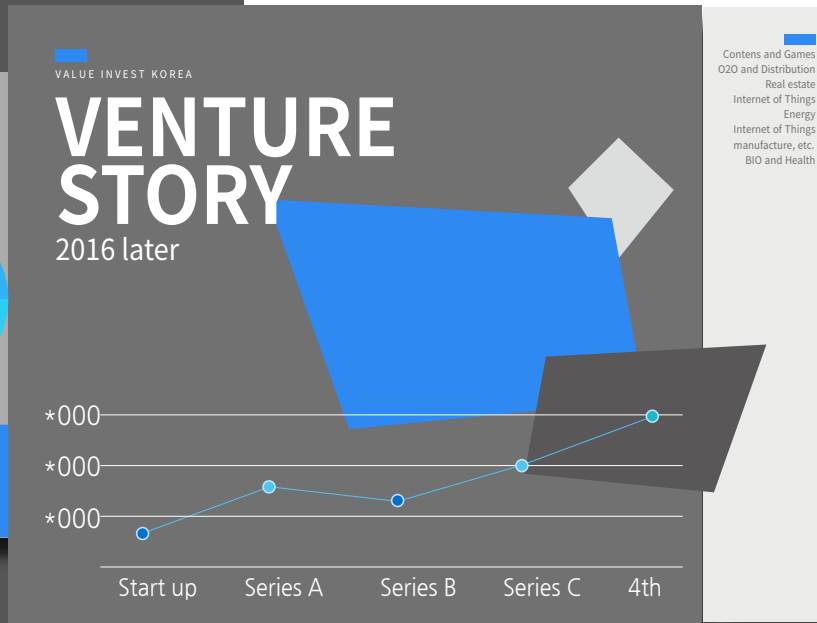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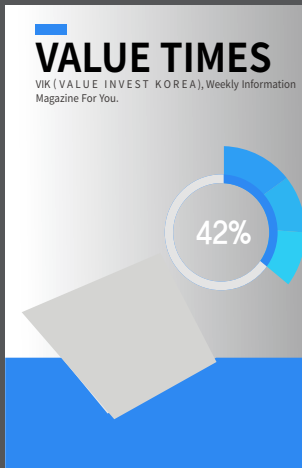
- 편치라인, 이지환 작가 신작 '닥터 퀸' 독점 연재
- 매주 수, 목, 토요일 3회씩 편치라인을 통해 완결까지 독점 공개

※ 이지환 작가

- 한국 로맨스 소설 최고의 히트 작가
- 대표작 : 화홍, 김치 만두 다섯 개
- 대표작 '화홍'은 팬들의 요청으로 출간 후 40만부 이상 판매
- 대표작 '김치 만두 다섯 개'는 KBS 방영 드라마 '헬로! 애기씨'로 영상화
- 집필한 대부분의 작품이 드라마 및 영화화가 추진

VALUE INVEST KOREA VENTURE STORY

제3회 2017.06.28



- 경제효과 7조달러...도로위 슈퍼컴 자율주행차
- 벤처투자 받은 창업기업, 뛰어난 일자리 창출효과
-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사)의 역할 주목
- 코스닥 IPO 부진...벤처투자 선순환 막힐라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브레이크, 핸들, 가속 페달 등을 제어하지 않아도 도로의 상황을 파악해 자동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이다. 정확하게는 무인 자동차(driverless car,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차)와 다른 개념이지만 혼용돼 사용하고 있다.

경제효과 7조달러

도로위 슈퍼컴 자율주행차

- 인텔은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의뢰해 ‘미래를 가속하다: 떠오르는 승객 경제(Passenger Economy)의 영향력’을 주제로 자율주행 기술 시장을 조사
- 인텔과 SA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처음으로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5단계 자율주행차가 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경제적 파급 효과는 2050년 7조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
- 보고서는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한 승객 경제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모바일 연결성 △도시화 △차량 공유네트워크의 부상 △교통 혼잡과 오염 등을 해결하려는 정부 규제 등을 선정
- 운전자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또는 무인 자동차)는 ‘도로 위의 슈퍼컴퓨터’
→ 스마트폰보다 1000배 이상 많은 반도체 칩이 들어가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이 필요하기 때문
- 자율주행 차량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산업 간의 초월적 협력이 필요한데, 그 시장 효과가 2050년에는 7조달러(약 8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이 보고서는 승객 경제가 개인의 차량 소유를 ‘서비스로서의 이동성(MaaS·Mobility as a Service)’이 대체하고, 새로운 운송·교통 서비스를 등장시킬 것으로 전망
※ MaaS는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보급될수록 자가 소유 차량 비율은 낮아져서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등으로 구성된 교통 시스템이 차량 간 네트워크로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서비스를 의미



벤처투자 받은 창업기업

뛰어난 일자리 창출효과 보여

일자리 창출

실업 문제는 소득 불균형과 사회 불안을 가져올 정도로 심각하다. 창업과 중소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 특히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인 지식 서비스 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블루오션이다. 소프트웨어, 콘텐츠, 의료, 관광, 교육, 금융 산업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또한 융합형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고용정보원, 한국벤처캐피탈 협회, 한국벤처투자 등과 함께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
 - #1. 부동산 온·오프라인연계형(O2O) 앱(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직방’의 경우 최초 투자를 받고 4년 새 고용 인원이 8.4배가 증가
 - 창업 2년차인 지난 2011년 16명에 불과하던 직방은 그 해 처음으로 5억원을 투자받은 후, 꾸준히 후속 투자를 받으면서 지난해 말 135명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같은 기간 매출액은 3000만원에서 275억원으로 1000배 가까이 늘어남
 - #2. 국내외 화장품 브랜드의 중국 마케팅 플랫폼을 운영하는 ‘비투링크’는 창업한 2014년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서 18명이던 직원이 2년 만에 81명으로 고용규모가 4.5배 늘어나고 같은 기간 매출도 8억원에서 261억원 32.6배 증가
-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 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은 2838개사, 지난해 말 기준으로 투자 받기 전년도에 비해 약 3만개의 신규 고용을 창출 특히 지난해 투자기업들의 지난 2015년 대비 고용증가율은 약 20%로 괄목할만한 성장성을 나타내, 벤처투자가 창업·벤처기업의 고용 증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특히,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나 청년창업 기업이 투자를 받은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월등
 -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 237개사의 지난해 말 기준 고용은 4550명으로, 2015년 말 2791명보다 1759명이 증가(고용 증가율은 63%)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모태펀드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 4월까지 2조6182억원 규모의 예산 투입돼, 약 4.4배에 해당하는 민간자본(11조4509억원)을 벤처투자시장에 유입시켰다”며 “그동안 중점적으로 지원한 창업초기, 청년창업기업에서 매우 뛰어난 고용 증가 효과를 나타냈다”고 설명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사업개시일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출자만하는 창업투자회사와는 달리 융자업무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융자한도는 소요자금의 90~100%이며 상환기간은 8, 10년(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이며, 원리금 상환을 대신해 사업결과로 발생하는 매출액에 비례한 로열티를 일정기간 받는다.

그리고 사업 실패시에는 최소상환금만 물면 된다.

■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장래성이 있지만 자본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기업에 대하여 기업주와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하면서 자금관리,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으로서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로 알려진 위험부담자본을 운용하는 금융업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자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행하는 것.

여기서 신기술사업자라 함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상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을 말한다.

- 미국의 벤처캐피탈은 크게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이하 CVC)과 사모펀드의 일종인 전통적인 벤처캐피탈(이하 TVC)로 나눌 수 있다. 그동안 벤처캐피탈에 대한 연구는 TVC에 집중돼 왔으나, 최근 구글 벤처스(Google Ventures), 시스코 인베스트먼트(Cisco Investments) 등 CVC의 역할이 학술적 또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주목
- 2015년 미국의 전체 벤처캐피탈 투자 딜 중 20.5%가 CVC에 참여한 딜이며, 이는 2010년 12.7%에 비하면 CVC의 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
- 한국의 벤처캐피탈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LLC 등을 포함
→ 그동안 벤처산업 육성정책에서 창투사에 비하면 신기사의 역할은 크게 주목받지 못함
- 최근 대기업들이 자본을 투자한 신기사의 설립이 증가 추세
- 기업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신기사는 특정 산업에 대한 이해, 잠재적 소비자의 욕구에 대한 이해, 벤처기업의 전략적 목표 설정 등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투사보다 강점을 확보
- 지속적인 펀드 조성을 위해 재무적 성과가 중요한 창투사는 초기단계 벤처기업 의무투자비율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발생, 반면 신기사는 펀드 조성의 상대적 자율성, 소규모 펀드 운영, 투자와 대출의 병행, 특정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함으로써 초기단계 벤처기업들의 욕구를 가리는 역할을 담당
- 미국의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 시 M&A를 적극 활용하는데 비해 국내에서는 M&A를 통한 자금 회수 비중이 극히 낮다.



코스닥

코스닥위원회가 운영하는 장외거래 주식 시장으로서 미국의 나스닥(NASDAQ: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이다.

코스닥 IPO 부진

벤처투자 선순환 막힐라

-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벤처 기업 무대인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흐름
→ 증시가 사상 최대 호황기를 맞자 비상장 벤처기업은 IPO를 원하는 투자자들의 압박에 진땀
-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참여가 부진한 편이어서 IPO 주관증권사에서 당장 상장을 추진하기보다 내년이나 내후년을 최적기로 보고 준비하라고 조언할 정도
- 벤처기업의 IPO 통로인 코스닥은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산업 선순환 생태계에서 ‘회수’ 역할을 맡는 중요 연결고리
- 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캐피탈의 신규 투자 규모는 2조1503억원으로 2015년(2조858억원)보다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
- 정부의 벤처투자금인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투자가 밀물처럼 유입되고 있는데 반해 코스닥 IPO나 M&A를 통한 회수 시장의 출구가 비좁아 투자금이 갇혀 있는 ‘병목현상’이 지속될 우려
- 회수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전체 벤처투자를 위축시키는 악순환 고리에 빠져 벤처창업과 활성화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음
- 벤처캐피탈협회 기준 지난해 IPO(재상장, 직상장, 외국계,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는 48건으로 2015년(57건)에 비해 감소했으나 2012년(20건)과 2013년(34건)에 비해선 증가
→ 2010년(50건), 2011년(55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진한 편
-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주가 소외되고 코스피 중심의 대형주 장세가 지속된 탓도 있지만 코스닥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해 증시 호황에도 IPO를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언급